

한국농어촌공사, 포천 소흘읍 고모저수지 일원서 환경정화 활동

양상현 기자 | 승인 2023.05.14 20:00

'내고장 물살리기'로 쓰레기 2.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 등 저수지 쓰레기 수거

[수도권=내외경제TV] 양상현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는 포천시 소흘읍의 고모저수지 일원에서 "2023년 고모저수지 내고향물살리기 행사"를 진행했다.



'내고장 물살리기'로 쓰레기 2.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 등 저수지 쓰레기 수거 모습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]

지난 11일 이뤄진 봉사활동은 쓰레기 투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,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조와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.



'내고장 물살리기'로 쓰레기 2.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 등 저수지 쓰레기 수거 모습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]

이날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포천시 도시정책과, 소흘읍사무소, 고모저수지 유선업장,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가해 쓰레기 2.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 가량의 저수지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.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공유하고, 깨끗한 수변 산책로를 만들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.



'내고장 물살리기'로 쓰레기 2.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 등 저수지 쓰레기 수거 모습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]

최재철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고모저수지가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ESG(환경보호, 사회공헌, 윤리경영)경영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.



'내고장 물살리기'로 쓰레기 2.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 등 저수지 쓰레기 수거 모습 [사진=한국농어촌공사]

한편, 이번 봉사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,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.



양상현 기자 kunitachii@naver.com

저작권자 ©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